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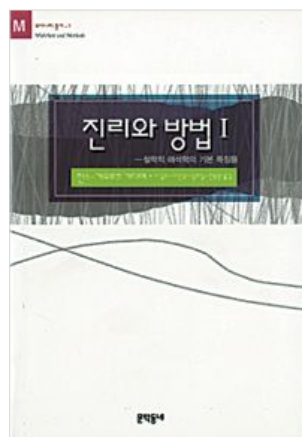
『진리와 방법』 —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저 —

박남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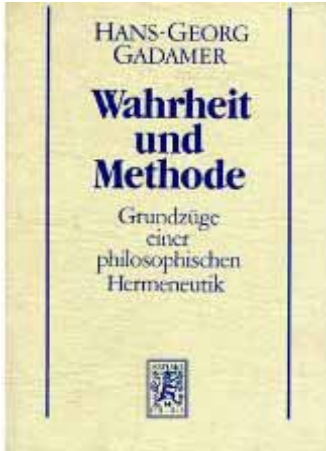
철학아카데미 상임위원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들이 있을 것이다. 시간과 더불어 늘어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면서 나 역시 마찬가지다. 출판사를 하던 집안과 문학을 하던 형제들 덕분에 비교적 일찍 책과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복이었다.

초등학교시절에는 소공녀와 알프스 소녀를 읽으며 그들을 흉내 내려다 사다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중등학교 시절에는 영국의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과 샬로트 브론테의 『제인 에어』에 빠져 황량한 들판의 바람을 쫓아 다녔으며, 그리고 독일의 루이제 린저와 헤르만 헷세의 작품에 심취되어 사춘기를 치열하게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카프카와



까뭉의 작품에 매료되어 대입고시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채 소설을 쓰겠다고 하여 엄마의 마음을 몹시 애타게도 했다.



그러나 끝내 작가의 길이 아닌 소위 철학 선생의 길을 가게 된 데에는 가다머 (Gadamer)라는 독일 철학자와의 만남이 있었다.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으로서의 신을 해체하고 존재자를 존재케 하는 것으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건만, 한국의 신학은 조금의 요동도 없이 더욱 확고부동한 자세를 취할 때, 그래서 나의 삶의 역사와 경험에 의한 신앙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이 낯선 이들이 만들

어 놓은 정답에 단순히 따르라 할 때, 나는 심각한 무병(?)을 앓았다. ‘Da-Sein’ (현-존재)으로서가 아니라 ‘Da-Ding’(현-사물)으로, 그래서 생명이 아닌 무(Nichts)로, 존재자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 당시 독일유학을 막 끝내고 시간강사로 오셨던 한 선생님으로부터 책을 소개 받은 것이 바로 이 『진리와 방법』이다.

가다머가 60세인 1960년에 쓴 이 책은 아직도 우리나라 말로 완역이 되지 않았을 만큼 상당히 난해한 저서 중에 하나다. 우리에게는 이국의 언어와 서양문명 전체를 꿰뚫어 보아야 하는 장애물이 더 있었지만, 차단된 곳에서 돌출구가 필요로 했던 난 곧바로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독일어 사전을 뒤지며 꼬박 두 해를 보냈다. 글쓰기가 산채로 죽음을 횡단하는 일이라 한다면, 글을 읽는 일 또한 불가능을 체험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실이 어두울수록 글은 빛나며, 우리는 현실이 아닌 글 속에서 길을 찾기도 한다.

가다머의 이 책은 내게 무한을 향한 욕망을 삶 안에서 추구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자연 철학자들처럼 순환되는 답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고대 철학자들처럼 목을 아프게도 하지 않으며, 중세 신학자들처럼 종속될 것을

가다머의 이 책을 통해 나는 성서를 교리서가 아닌 생명서로 살아 있는 언어로 읽을 수가 있었다. 죽어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계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기억해야 할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 현재의 이야기로 늘 달리 새롭게 읽혔다.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근대철학자들처럼 자기중심적이지도 않다. 이 책은 늘 달리 새롭게 자신을 실현해 가는 책임 있는 주체가 될 것을 말할 뿐이다. 다시 말해 각기 자기에 앞서 주어진 전승, 또는 선입견과 더불어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로 융합 하면서 늘 달리 새롭게 자기로 실현해 가는 일, 그 일이야말로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로 융합하는 일이란 모든 것을 하나로 이해하며, 적용하며, 생성하며 존재하는 일로서, 이때 이해란 무엇을 알고 모르고 하는 삶의 차원이 아니라 이해함이 곧 적용이며 적용함이 곧 새로움을 만드는 생성으로, 그것이 곧 나라는 존재인 삶의 차원을 지시한다.

“이해는 항상 이미 적용함이다(Verstehen ist immer schon Anwenden).”

가다머는 머리로, 이론으로, 추상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의 모든 것들과 하나로 이해하며 적용하며 해석하며 늘 달리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 가는 주체적 삶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근대의 주체와 같은 어느 한편의 일방성에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도 편중됨이 없는 대화를 통한 생성의 신비를 삶의 구체적 한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가장 적합함을 묻는 삶의 예술로, 늘 달리 이해하며 해석하며 나아오는 사유운동인 철학으로, 그리고 사실 판단이나 지시로서의 언어가 아닌 자기 고백적 존재 언어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진리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따로 실재하는 것도, 근대의 차가운 도구적 이성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닌, 구체적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적 삶 속에서 만나지는 것이다. 슬퍼하며, 애통해 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진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는 그 어떤 이론으로도 객관화, 수치화, 일반화, 절대화시킬 수 없는, 오직 진리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경험되는 신비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진리가 자유인 것이다.

가다머의 이 책을 통해 나는 성서를 교리서가 아닌 생명서로 살아 있는 언어로 읽을 수가 있었다. 죽어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 계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기억해야 할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 현재의 이야기로 늘 달리 새롭게 읽혔다. 글자에 매여서가 아니라 글자에 가려진 의미까지, 눈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과 함께하는 나의 이야기로, 관념으로가 아니라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매번 달리 읽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만나는 얼굴들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볼 수 있었으며, 그래서 쉽게 휘둘리지도, 휘두르려고 하지도 않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었다. 길을 가며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다양한 경험이 나의 삶을 늘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기 존재를 늘 궁구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은 한 번쯤은 그를 만나보시라 권하고 싶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서 더욱 그러하다. 모든 분야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교육, 의료, 예술, 복지, 현대 문명에 대해 그의 외침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책이 아직 일부분만 번역되어 있어 보다 많은 사람이 그의 철학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충분히 그의 사상, 즉 삶이란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라 한다면 철학은 무한을 향해 나아가는 사유의 운동으로서 당연히 형이상학이 아니라 해석학이 되어야 하며, 이때 해석학이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이해가 곧 존재라는 그의 철학적 해석학을 접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